

유혹과 갈등 속에서 피어나는 '청렴의 꽃'

과거에 나는 직원 여섯 명을 거느린 조그마한 급식 식자재 업체를 운영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해오며 양심을 지키고 부정(不正)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나름의 소신을 지켰다. 물론 온갖 검은 유혹이 판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편법을 쓰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단순히 의지와 소신만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과 맞닥뜨릴 때도 많았다.

식자재 공급 계약을 앞두고 학교 교장이나 교감, 기업의 실무자가 노골적으로 뒷돈과 향응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일은 대부분 식자재 공급과 관련된 세부 조율을 모두 마치고 계약서에 사인을 앞둔 상황에서 벌어졌다. 그때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뒷돈을 주고 편법을 써서 계약을 따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지곤 했지만, '내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품질 좋은 식자재로 승부하면 알아봐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검은 거래를 거절했다. 그러면 해당 공급 건은 다른 업체로 넘어가 버리곤 했다.

물론 그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달아 우리 회사에 퇴짜를 놓았다. 공급 단가가 비싸다거나 식자재 품질이 형편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들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계약을 따낸 업체들이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공급 단가를 고의로 높여 부르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식재료를 납품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학교나 기업의 구성원들이 입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에서 울화가 치밀고 신물이 넘어오곤 했다.

'내가 잘못된 걸까. 역시 뒷돈을 주고서라도 공급 계약을 따냈어야 하는 건가. 나에게는 부양할 가족과 딸린 회사 식구들도 있는데....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니야. 한 번이 힘들지, 일단 선을 한 번 넘고 나면 결코 예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야.'

그나마 우리를 인정해 주는 곳들이 더 많아 간신히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회사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점점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내가 평생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해 마음을 다잡곤 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경쟁 업체가 난립하고 경기마저 안 좋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다.

수십 년을 함께 일한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만든 것 같아 기분이 참담했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인 만큼 미안한 마음을 담아 퇴직금을 일률적으로 30%씩 더 챙겨 주었다. 여기에 자식 둘이 연달아 시집, 장가를 가는 통에 전세자금과 혼수를 맞춰 주고 나니,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제외하곤 손에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재취업은 꼭 필요했다. 평소 실용주의자를 자처하며 살아온 나이기에 20년간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지내 왔어도 재취업에 딱히 거부감은 없었다. 나는 뛰어난 손재주를 살려 늦게나마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곧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기사로 취업하게 되었다.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늦은 나이에라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어 보람은 컸다.

그런데 검은 유혹은 이곳에도 존재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작은 금전적 이익을 놓고 편법과 부정(不正)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것이다.

하루는 관리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난방이 되지 않는다며 점검을 요청하는 입주민의 전화였다. 우리는 2인 1조로 근무하는 시스템이었기에 난방 관련 점검 기계들을 이것저것 챙겨 들고 선임 기사와 함께 입주민의 집을 방문했다.

선임 기사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선임 기사와 함께 난방 관련 장치들을 점검했더니 난방 조절 장치가 고장 나 새로 교체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선임 기사는 입주민에게 “난방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났네요. 제품을 구입해서 오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제품 구입비 3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기전실로 돌아온 나는 선임 기사에게 새 제품은 어디서 사와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선임 기사는 “새 제품은 사지 않아도 돼요. 다른 가정에서 고장 나 거둬들인 중고품을 미리 고쳐 놓은 것이 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그는 “깨끗이 닦아서 빈 상자에 넣어 가면 새 제품이랑 똑같아서 아무도 몰라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기전실 내부에 중고 제품을 쌓아두는 캐비닛을 열고, 그 안에서 미리 수리해놓은 중고 난방 조절 장치를 가방에 챙겨 넣었다. 누가 봐도 감쪽같이 새 제품 같았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던 나는 선임 기사를 향해 말했다.

“좀 전에 입주민에게는 제품 구입비가 3만 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새 제품을 사서 교체해 드려야지요.”

그러자 선임은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살려고 해요? 입주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작동만 하면 되는 거지, 중고로 바꿔 주나 새것을 달아 주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내가 앞으로 김 기사한테도 절반씩은 떼어 줄 테니, 걱정 말아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리저리 건수가 많아서 은근히 수입이 짹짹하거든.”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한 달이면 이런저런 건수들로 적어도 20만 원에서 최대 30, 40만 원까지는 생기는 눈치였다. 당시 형편을 생각하면 충분히 욕심나는 돈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입주민을 기만하는 범법 행위였다. 마음을 다잡은 나는 선임 기사에게 힘주어 말했다.

“아무리 소액이라지만 그래도 이건 입주민을 속이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입주민들이

나는 돈으로 월급을 받는 처지에 그들을 기만하는 일은 차마 못 하겠습니다. 적어도 자랑 같은 조가 되었을 때는 이러지 마십시오. 눈감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선임 기사는 나를 노려보더니 쏘아붙였다.

“아이고, 당신처럼 딱 막힌 사람이랑은 나도 일 못 하겠네. 나 혼자 올라가서 교체하고 올 테니까 김 기사는 빠져요!”

선임 기사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기전실을 빠져나갔고, 얼마 후 혼자 일 처리를 하고 돌아왔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선임 기사의 지시로 관리사무소 내에서 매번 굶은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비교적 간단한 일이나 돈이 되는 일은 선임 기사가 또 다른 기사와 조를 이뤄서 나갔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힘이 드는 일은 나만 혼자 출동을 하게 했다. 선임 기사는 2인 1조 근무라는 규정마저 어긴 채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나섰다.

관리소장에게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무슨 일인지 선임 기사를 감싸고돌며 나를 배척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졸지에 관리사무소에서 문제아 취급을 받게 되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합심해 나를 따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며 지냈지만, 양심을 팔지 않은 청렴한 선택을 한번도 후회해본 적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물품 구입이나 아파트 내외부 공사와 관련해 외부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일이 부녀회 측의 신고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조직적으로 벌였던 부정들이 대거 밝혀지면서 관리소장과 몇몇 직원이 웃을 벗게 되었다.

아파트가 발칵 뒤집히자, 부녀회에서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전반적인 활동과 관련된 불만 사항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선임 기사의 부정 건도 함께 밝혀지게 되었다. 난방 조절 장치가 고장 나 3만 원을 주고 교체했는데 한 달 만에 또 고장이 나 다시 3만 원을 주고 수리를 받은 입주민이 클레임을 걸었던 것이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부녀회 측에서 입주민을 방문해 난방 조절 장치를 뜯어보았더니, 몇 개월 전에 바꾼 난방 조절 장치의 제조 날짜가 5년 전으로 찍혀 있는 것이 드러났다. 선임 기사가 새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중고품을 고쳐 쓴 후 제품값을 부당하게 받은 일 발각된 것이다.

그 후 부녀회 측에서는 최근 2년 사이에 관리사무소 기사들이 진행한 모든 작업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나를 제외한 다른 기사들이 모두 부정 행위를 행한 것으로 드러나 해고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자는 소신을 지킨 덕분에 엄청난 후폭풍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었지만, 선임 기사의 일을 보면서 어쩐지 마음 한편이 씁쓸하기도 했다.

정직과 청렴의 꽃이 지고 나면 한편에선 반드시 부정부패와 거짓이 고개를 든다. 반칙으로 차지한 이득은 결국 내 힘으로 쌓아 올린 것들까지 함께 무너뜨리고 만다.

검은 유혹의 가치는 청렴함의 가치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당장의 이득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나 하나의 행복이 아닌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유혹과 갈등 속에서 피어나는 '청렴의 꽃'. 나의 조그만 의지와 행동 하나가 청렴의 꽃이 만개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